

중화산도서관 건립 '탄력'

전주시, 12번째 시립도서관인 중화산도서관 건립 위한 내년도 국비 15억 확보 인근 지역주민들 문화격차 해소·정보서비스 제공 도움 될 것으로 기대

전주시 중화산동 일대 주민들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중화산도서관 건립사업이 국비확보로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12번째 시립도서관인 중화산도서관 건립을 위한 내년도 국비 15억을 확보함에 따라 2019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중화산도서관은 총사업비 96억원을 투입해 중화산동2가 화산체육관과 근영여고 중간지점에 부지면적 3,397㎡, 연면적 3,623㎡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특히, 도서관이 건립되는 빙상경기장 옆 부지는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 그간 도서관이 없어 이용에 불편을 겪던 인근 지역주민들의 문화격차 해소와 정보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중화산도서관을 로비 등 실내 면적을 넓게 해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보다는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도서관, 시민에게 친숙한 도서관으로 지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재 전주에는 11개 시립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중화산도서관이 문을 열면 12개의 시립도서관

이 갖춰져 시민 약 5만5000명 당 1개의 시립도서관을 보유하게 된다.

이는 OECD 권고기준인 인구 5만명당 1개의 공공도서관 구현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것으로, 도서관 도시이자 책의 도시인 전주의 도시 브랜드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용자 전주완주도서관장은 "기존의 시립도서관과는 다른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시립도서관이 건립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주시를 대표하는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도교육청, 40개 학교 흡연예방 동아리 지원

40개 학교 흡연예방 동아리 지원 전북도교육청이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40개 초·중·고등학교의 동아리를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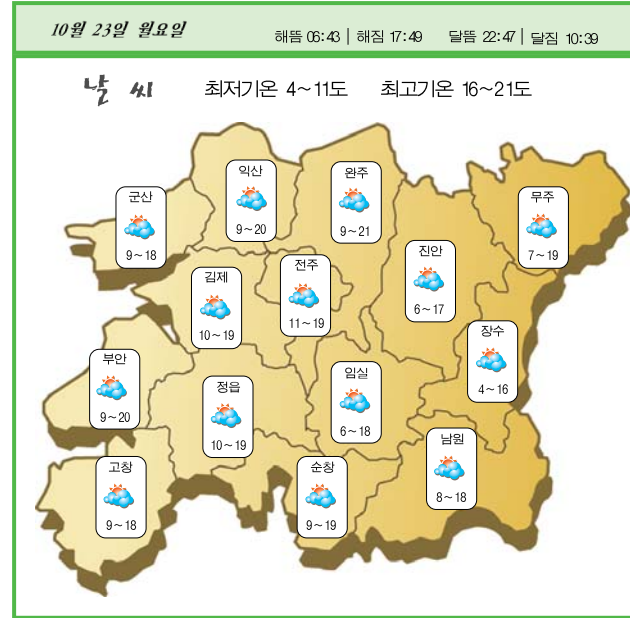
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흡연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일 도교육청은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낮추고 학교별 우수 흡연예방활동 동아리를 육성하기 위해 총 40개 흡연예방동아리를 선정해 팀당 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난달 말에는 김제와 고창에서 흡연예방 동아리회원들이 금연포스터집이 참여하는 흡연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김제시는 김제고 김제여고 학생들이 지평산축제 쌍용 앞에서 금연 캠페인을, 고창군은 영선중학생들이 고창군청과 보건소 앞에서 흡연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 LINC+사업단 모래내시장 벽화그리기 활동 전개 '호평'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전주 모래내 시장에 벽화 그리기 지원 활동을 전개해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대 LINC+사업단(단장 고영호)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전주 모래내시장에서 벽화그리기 활동을 전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지역 기업 지원 등에 적극 나서 등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을 수행해 온 사업단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이번 벽화 그리기 사업을 기획했다.

이번 벽화 그리기에는 미술 전문가에서부터 자발적으로 팔을 걷어붙인 사업단 소속 학생들이 참여해 매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구슬땀을 흘렸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전주 모래내시장 주차장에서 시장 입구까지의 외벽에 화려한 꽃들이 피어났고 추후 전주의 새로운 명물이자 포토존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 고영호 단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역맞춤형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전주 모래내 시장에 벽화 그리기 지원 활동을 전개해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해은 기자

전주시, 초·중학생과 함께하는 한복문화행사 개최

전주시가 시민들이 우리 옷 한복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입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지난 20일 송천동 오송초등학교에서 초·중학생과 함께하는 한복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생활 속 한복입기 문화 확산을 위한 한복문화행사는 지난 7월과 9월 각각 전주역앞 첫미중길과 전북혁신 도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비영리단체 비빔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아름다운 전통무용과 청소년의 활력 넘치는 댄스로 문을 열었으며, 한복패션쇼와 전통악기공연 등이 이

어지면서 가을밤을 다채로운 한복과 문화로 수놓았다.

특히, 이번 행사는 시가 미래 전주시를 이끌어갈 유소년들에게 한복에 대한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사전에 참가를 신청한 19개팀 70명이 패션쇼 무대 위장에 참여하는 색다른 체험을 경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복을 입어보고 사진을 촬영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한복체험 부스와 포토존이 설치돼 관람객들에게 소중한 즐거움을 제공했다.

/김민근 기자

'유아의 탐구심을 자극하는 가장 좋은 교재는 자연이다'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생태놀이터 운영 호평

눈으로 관찰하고 직접 만져보는 경험 통해 생명에 대한 가치·소중함 스스로 깨닫게 하는 체험프로그램 제공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원장 신순희)에 조성된 생태 놀이터가 보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유아의 탐구심을 자극하는 가장 좋은 교재는 자연이다 라는 교육철학에 기반을 두고 체험동 내 유희공간과 야외 정원을 활용하여 10여종의 살아있는 애완곤충과 육지거북, 도둑개, 닥터 피쉬 등을 만날 수 있는 이 생태공간은 유아가 눈으로 관찰하고 직접 만져보는 경험을 통해 생명에 대한 가치, 소중함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가만히 손을 담그면 어느새 다가와 손가락을 간질이는 닥터 피쉬의 움직임과 먹이를 쪼면 사각사각 아체를 먹는 육지거북의 식성은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아들은 물론이고 인솔 교사들의 시선까지 빼앗고 저절로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이 거북은 다섯 살이래요"라며 육지거북의 나이를 알려주는 유아의 들뜬 목소리와 풀 속에 숨어있는 곤충을 찾아내려는 아이의 호기심 가득한 눈빛에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자연에 대한 탐구심이 가득 차



체험동 내 유희공간과 야외 정원을 활용하여 10여종의 살아있는 애완곤충과 육지거북, 도둑개, 닥터 피쉬 등을 만날 수 있는 생태공간은 유아가 눈으로 관찰하고 직접 만져보는 경험을 통해 생명에 대한 가치, 소중함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있다.

이곳을 찾는 인솔교사들은 "유치원에서는 살아있는 생물을 유지·관리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쉽게 제공할 수 없었던 생태체험을 진흥원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어

유아의 생명존중 교육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유아교육진흥원은 연인원 3만명의 유아들이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도내 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들의 탐구능

력 향상 및 생태교육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체험동 내 생태놀이터 애완생물을 정기적으로 교체하여 다양한 생물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해은 기자

국립순천대학교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문화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